



“옥자 논란 내 영화적 욕심 때문”

멀티플렉스 보이콧에 “업계 새로운 규칙 생기길”

29일 전국 100여개 극장·넷플릭스 동시 상영

“다 제 영화적 욕심 때문에 벌어진 논란 같습니다. 그래도 ‘옥자’가 업계의 새로운 틀과 규칙을 세우는 데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사진)이 최근 ‘옥자’를 둘러싼 극장 상영 논란에 대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봉 감독은 14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3주간의 홀드백을 원하는 멀티플렉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 동시상영을 원하는 넷플릭스의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옥자’는 넷플릭스 가입자들의 회비로 제작된 것이 만큼, 넷플릭스 가입자들에게 극장 상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영화를 찍으면서 관객들이 큰 화면에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논란은 다 저의 영화적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며, 원인 제공자는 저”라고 말했다.

봉 감독은 “칸영화제에서 넷플릭스 영화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진 것처럼, 국내에서도 ‘옥자’를 계기로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나 극장 개봉 영화와 관련한 업계의 세부적인 룰이나 규칙이 다듬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봉 감독은 “‘옥자’는 멀티플렉스는 아니지만, 대한극장, 서울극장 등에서 상영된다. 전국의 정겨운 극장들을 찾아가 볼 기회”라며 “그 상황 자체가 만족스럽고, 작지만 길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옥자’는 거대동물 옥자와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의 우정과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오는 29일 멀티플



렉스를 제외한 전국 100여 개 극장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상영된다.

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들은 극장과 온라인 동시상영은 “영화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옥자’ 개봉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다.

봉준호 감독은 이날 회견에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봉 감독은 ‘설국열차’에 이어 ‘옥자’까지 다양한 문화가 담겨있는 영화를 만드는 데 대해 “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문화적 철학을 갖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만드는 메커니즘은 동일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며 “‘괴물’ 때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특수효과팀과 시각틱과 일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에 적응됐다. 언어나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송강호가 주연을 맡은 차기작 ‘기생충’을 언급하며 “다음 작품은 100% 한국어 영화가 될 것이다. 그런 스토리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틸다 스윈턴, 안서현, 스티븐 연, 변희봉,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 다니엘 헨셀 등 ‘옥자’의 출연 배우들도 참석했다.

틸다 스윈턴은 “마치 고향에 온 느낌이다. 아름다운 ‘옥자’를 고향인 한국어로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가 한국영화인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틸다 스윈턴은 “‘옥자’는 범주적인 성격을 지닌 영화”라며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절대 일반화시키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봉 감독은 나의 우상이며 형제”라고 극찬했다.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도 “제가 태어난 국가에 영화인으로 오게 돼 영광”이라며 “제 영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다. 꿈이 실현된 것 같다”며 말했다.

‘옥자’에서 케이 역을 맡은 그는 “사실 ‘케이’는 저다. 문화적 경계에 있는 존재”라며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는데, 모든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이 겪는 일들이기도 하다. 그런 경험을 이번 영화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로배우 변희봉은 “살다 보면 변희봉以外 다 생기는 것 같다. 세상에 이 변희봉이 칸영화제 참석하고, 별들의 잔치를 보고 왔다”면서 감격해 했고, 주인공 미자 역을 맡은 안서현도 “(칸영화제 초청 경험은) 앞으로 연기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베’ 회원, 트와이스 미나 살해 협박

손목에 흉기 댄 사진 게재

소속사 “선처 없이 강경 대응”

JYP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트와이스의 미나(20·사진)를 죽이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한 회원이 올린 미나 관련 협박글에 대한 법무팀의 법률적 검토 결과 선처 없이 고소, 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모든 법률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일베의 걸그룹 게시판에는 손목에 칼을 대고 있는 사진, 트와이스 미나의 사진과 함께 “내가 너 죽이러 갈 거예요”란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 뒤늦게 손편지로 된 사과문을 통해 “인기글로 가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본인은 이러한 게시물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고 어느 정도의 공포감을 주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작성했다”고 사과하고 선처를 구했다. /연합뉴스

손연재, FT아일랜드 최종훈과 열애

“서로 알아가는 단계”

‘체조요정’ 손연재(23)와 그룹 FT아일랜드의 리더 최종훈(27)이 열애 중이다.

손연재 측 스포츠마케팅업체 갤러시아SM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한다. 각각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를 부탁한다”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최종훈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역시 보도자료에서 “본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최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알아가는 중이라고 한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해 석 달째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연재는 지난 3월 4일 태릉선수촌에서 리듬체조 선수 은퇴 기자회견을 한 뒤 EBS 1TV 자연 다큐멘터리 ‘이것이 야생이다’에



손연재 최종훈

출연, 연애에 진출을 타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왔다.

FT아일랜드는 지난 7일 데뷔 10주년 기념앨범 ‘오버 텐 이어서’(Over 10 Years)를 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10 국회인사청문회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11		00 7일의 황비(재)		
12	00 KBS 뉴스 12	05 이름 없는 여자(재)	00 MBC 정오뉴스 20 2017 MBC 특별생방송 힘내라! 중소기업UP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2017 한국여자오피스 IR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베		30 허하랜드 스페셜	
2	20 타오르자마 버스터 50 팔도밤산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25 드림 주니어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3	10 다큐 공감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머드(재)	00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통소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매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00 생방송 빛남	10 수상한 파트너 45 날씨와 생활 50 교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라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속보하는TV 인사이드	55 별별머드(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7일의 황비	00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다큐 2부작 우주극장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탈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	55 해피 투게더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워싱턴 교사 이야기>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우리는 선생님과 제자 사이>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불고기 케밥과 단호박 맛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95세 동남내기 로맨스>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노인과 바다>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내뿐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엄홍길의 니마스테 내팔 - 신의 초복이 깃든 땅 카트만두> 21:30 한국기행 <지금 이 순간 취하는 법> 21:50 과학 다큐 버문드 <3D 프린팅, 상상을 출력하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할머니의 마음을 잡아라! 배우 류현정의 가고시마 여행>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5일(음 5월 21일 癸酉)

<p>子</p> <p>48년생 기존의 성향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변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60년생 본심이야 어땠던 건에 함께하는 것이 무난하다. 72년생 수단이나 방법이 흠결이 보인다. 84년생 객관적인 면에 착안해서 주력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5, 77</p>	<p>午</p> <p>42년생 활기차게 진행될 것이다. 54년생 기상이 실제의 상황으로 전개되리라. 66년생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히 대응하라. 78년생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90년생 전전긍긍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37, 19</p>
<p>丑</p> <p>49년생 전체의 특색을 파악하고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 61년생 못 줄이 반드해야 모를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이치이다. 73년생 행동력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리라. 85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행운의 숫자 : 70, 15</p>	<p>未</p> <p>43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55년생 참고 버티다 보면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느니라. 67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79년생 적극적으로 실행하라. 91년생 원만한 관계의 설정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4, 47</p>
<p>寅</p> <p>50년생 흥겹게 발생하지만 큰 자장을 조려할 정도는 아니다. 62년생 첫 번째의 건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하다. 74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86년생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95, 79</p>	<p>申</p> <p>44년생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56년생 어떠한 구도가 되더라도 소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68년생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 했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80년생 대신 시키는 것이 훨씬 유연하리라. 행운의 숫자 : 11, 80</p>
<p>卯</p> <p>51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든 법이다. 63년생 강력한 기세이다. 75년생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 풍향과 풍력을 잘 활용해 보라. 87년생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8, 97</p>	<p>酉</p> <p>45년생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일정이 다소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69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 질 수도 있다. 81년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장치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3, 58</p>
<p>辰</p> <p>52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64년생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로다. 76년생 본분에 소홀하지 않아야만 대의를 도모할 수 있다. 88년생 지금 확실히 잡아두어라. 행운의 숫자 : 48, 52</p>	<p>戌</p> <p>46년생 재수발원 한다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날이다. 58년생 길성이 흉왕하므로 경사가 따를 것이니라. 70년생 반박되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적응하게 되리라. 82년생 동착은 여유를 가지되 생각의 순발력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99, 04</p>
<p>巳</p> <p>53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하자. 65년생 잠심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77년생 녹음방송에 새가 지지 귀니 마음껏 즐겨도 된다. 89년생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니 장고 후에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79, 53</p>	<p>亥</p> <p>47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59년생 친화력과 자연스러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71년생 요긴한 것이니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83년생 실체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9, 0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